

광주예술의전당 2026년 ‘제작극장’ 도입...새 판 짠다

전용 관현악단 신설 지역 예술인 참여 확대
광주 현실 담은 지속 가능한 청사진 필요

광주예술의전당(사진)이 2026년부터 공연 제작 기능을 강화한 ‘제작극장’ 체제로 전환한다. 전당은 11일 전당장 주재로 제작극장 전환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열고, 내년 도입될 제작극장 시스템과 전용 관현악단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전당에 따르면 공연 기획부터 제작·연습·상연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자체 제작 공연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늘리고 지역 예술인과의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핵심은 전당 전용 ‘관현악단’ 창단이다. 발레단·오페라단·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 등 시립예술단체와의 협업 공연에서 기존 광주시향의 일정·연습 여건 제약을 해소하고, 기획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시립예술단의 공연 가운데 오케스트라 협연이 필요한 일정이 연간 100일을 넘지만, 광



주시향이 모든 요정을 소화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당 측 설명이다.

신규 관현악단은 오는 11월 오디션으로 2판 편성 약 50명 내외를 선발한다.

상임 지휘자는 두지 않고 공연 성격에 맞춰 지

휘자를 초빙하며, 연간 20~30회 무대에 투입한다. 연습은 현재 리모델링 중인 전당 별관 대형 연습실에서 진행된다.

새로 창단하는 관현악단 운영비는 기존 외부 기획사 공연에 주로 쓰이던 기획공연비(약 10억

원) 일부와 매년 2억원 이상 드는 외부 오케스트라 섭외 비용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전당 측은 이 관현악단이 장르 제약 없이 대중 음악·국악·팝 콘서트 등 다양한 기획 공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프리랜서 음악인에게는 지속적인 공연 기회와 일정한 소속감을, 시민에게는 품격 있는 공연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간담회에서는 민간 오케스트라의 공연 기회 축소 가능성, 협업 공연 비중 증가에 따른 단독 기획 공연 위축 등 사안이 거론됐다. 장기 운영 시 인력 운용 측면에서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수도권 및 타 지역 제작극장 사례를 충분히 분석해 광주 현실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운영문 전당장은 “제작극장으로의 변모는 지역 예술인에게 무대를 넓히는 계기이자 시민에게는 다양한 공연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간 무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역 연주자들이 더 많은 무대에 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한 시도다. 재원과 운영 구조를 안정화해 향후 처우 개선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베르나르 베르베르 해설로 듣는 클래식 공연

‘키메라의 시대’...24일 ACC 극장1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문학과 클래식을 접목한 무대로 국내 관객을 찾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ACC 초이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24일 오후 3시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키메라의 시대’를 공연한다.

이번 무대는 오는 20일 국내 출간 예정인 베르나르 베르베르(사진)의 신작 소설 ‘키메라의 땅’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작가 본인이 대본을 집필하고 해설자로 참여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날 연주는 세종솔로이스츠와 함께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 플루티스트 최나경이 협연한다. 문학과 클래식 음악의 융합을 통해 색다른 감각의 예술적 경험을 관객에게 선사할 예정



이다.

소설 ‘키메라의 땅’은 제3차 세계대전 이후를 배경으로, 진화생물학자 알리스 카머라가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를 결합한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각각 지하, 하늘,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세 생명체를 통해 인류의 생존 방식과 존재 이유를 되묻는 긴장감 넘치는 서사가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이야기 전개에 어울리는 클래식 선율과 해설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이전에 없던 독창적인 무대를 펼쳐 보인다.

관람료는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이며, ACC재단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전남문화재단×서울옥션, 제로베이스 경매 참여작가 공모

27일까지 남도사이버갤러리 통해 접수

지역 작가들의 활발한 미술시장 진출과 국내외 미술계에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경매가 열린다. 전남문화재단과 ㈜서울옥션이 협업한 ‘제로베이스’ 온라인 경매다.

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경매는 작품가 0원에서 시작해,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 구매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옥션과 재단은 2020년부터 이 경매를 공동 기획·운영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37점 100% 낙찰, 88회 경합 끝에 1천610만 원을 기록한 사

례 등 꾸준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낙찰가의 11%만 수수료로 책정해 작가가 88%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는 기존 수수료 비율(2020~2022년: 옥션 5·작가 5 / 2024년: 옥션 4·작가 6)보다 파격적으로 높아진 수준이다.

서울옥션과 재단은 지역 작가의 수익을 최대한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공모에 참여한 전남 작가들의 작품은 서울옥션에서 최종 선정하며, 경매 외에도 ‘서울옥션 강남센터’와 ‘전남도청 갤러리’ 전시, 양 기관 채널을 통한 홍보 기회도 제공된다.

지원 자격은 전남에 거주 중이거나 전남 출생, 또는 전남 소재 초·중·고·대학교 졸업자인 미술 분야 작가로, 경력 제한은 없다.

신청은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재단이 운영하는 남도사이버갤러리 작가 회원 가입 후 참여 작품과 필수 서류(주민등록증·초본,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를 업로드하면 된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공모는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온 지역 작가들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자리”라며 “작가들이 더 넓은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시민참여 투어’ 모집

10월28일까지...예술·역사 접점 탐구

(재)광주비엔날레가 광주비엔날레 아카데미 ‘시민참여 투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오는 9월과 10월 두 달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두 가지 코스로 기획됐다.

첫 번째 투어 프로그램은 ‘광주비엔날레는 광주를 어떻게 끌어안는가?’이다.

오는 30일 개막하는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

레 주제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인간을 어떻게 끌어안는가’와 연결해 광주 지역 미술 기관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금·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만 10세 이상 개인 혹은 단체면 신청 가능하다.(만 14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예술이 도시를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주제의 두 번째 투어 프로그램은 광주비엔날레와 도큐멘타 인스티튜트의 공동 연구협력사업인

‘도시정책과 비엔날레’를 주제로 5·18 사적지를 돌아본다. 연구 주제와 연관이 있는 전공자 및 전문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586보안부대와 구 국군광주병원 등이 포함돼 예술과 역사의 접점을 확장한다.

각 투어는 이강하미술관 명예관장, 5·18 기념재단 연구원과 전남대 5·18 연구소 조교수 등 각 기관 전문가들이 해설할 예정이다.

‘시민참여 투어 프로그램’은 오는 10월28일까지 상시 모집하며, 9월20일부터 10월31일까지 매주 금·토 진행된다. 추석주간인 10월10~11일 제외.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시내 지역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지방 지사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시내 지역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윤남지국 952-1687

지방 지사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시내 지역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